



PRESS RELEASE

수신: 자동차 담당 기자
배포일자: 2026년 9월 14일(월)
관련자료: 사진자료

제네시스, 이탈리아서 '마그마 GT 콘셉트' ·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公道 주행 최초 공개

- 유럽의 대표 자동차 문화 행사 '뚜또 베네 힐클라임'서 두 콘셉트의公道 주행 모습 첫 선
- 대비되는 매력의 두 콘셉트 주행 선보이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성능 버전의 폭넓은 스펙트럼 입증
- GMR-001 하이퍼카 · 박스 버기 콘셉트 전사...고성능부터 미래 기술까지 폭넓은 개발 역량 부각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지난 9 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피에몬테주 모타로네산(Mount Mottarone)과 마조레 호수(Lago Maggiore) 인근에서 개최된 '뚜또 베네 힐클라임(Tutto Bene Hillclimb)'에 참가해 '마그마 GT 콘셉트(Magma GT Concept)'와 '엑스 스콜피오 콘셉트(X Skorpion Concept)'의 주행 모습을 최초 공개했다.

'뚜또 베네 힐클라임'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디자인 스튜디오 '보로메오 데 실바(BorromeodeSilva)'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기반의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레이스 서비스(Race Service)'가 공동 기획해 2024 년 출범한 자동차 행사로, 참가 차량과 참가자를 선별해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열린 제 2 회 행사에는 약 80 대의 차량이 참가하는 등 자동차, 디자인, 라이프스타일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자동차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뚜또 베네 힐클라임'의 하이라이트는 총 51 개의 코너 등으로 구성된 연장



PRESS RELEASE

약 9km 의 산악도로 주행이다. 일반적인 힐클라임 이벤트와 달리 순위와 기록 경쟁을 배제하고, 참가 차량의 성능과 디자인을 감상하며 운전의 즐거움과 자동차 문화를 함께 나누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힐클라임 주행에서 제네시스는 처음으로 마그마 GT 콘셉트와 엑스 스킴피오 콘셉트의公道 주행 모습을 공개했다.

‘마그마 GT 콘셉트’는 제네시스의 퍼포먼스 비전인 ‘럭셔리 고성능’의 정점을 보여주는 콘셉트 모델로, 지난해 11 월 프랑스 르 카스텔레 지역 폴리카르 서킷에서 열린 ‘마그마 월드 프리미어(Magma World Premiere)’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됐다.

‘엑스 스킴피오 콘셉트’는 올해 1 월 아랍에미리트(UAE) 룩알할리(Rub' al Khali) 사막에서 열린 ‘제네시스 데저트 프리미어(Genesis Desert Premiere)’ 행사에서 처음 공개된 익스트림 오프로드 콘셉트카로 오프로드 레저를 즐기는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차량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소속 드라이버 안드레 로테러(André Lotterer)가 직접 운전하며 엑스 스킴피오 콘셉트를 유럽 무대에 처음 선보였다. 엑스 스킴피오 콘셉트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오프로드 영역으로 확장한 새로운 디자인 방향성을 보여줬다.

제네시스는 미드십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인 마그마 GT 콘셉트와 거친 환경을 정복하도록 설계된 익스트림 오프로드 콘셉트 모델인 엑스 스킴피오 콘셉트의公道 주행을 선보이며,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차량을 통해 브랜드가



PRESS RELEASE

추구하는 고성능 비전의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주행을 선보인 두 콘셉트카 외에도 제네시스는 GMR-001 하이퍼카와 박스 버기 콘셉트(Box Buggy Concept)를 함께 전시해 모터스포츠부터 미래 모빌리티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기술 개발 역량을 보여줬다.

한편, 제네시스는 지난해 행사에도 참가해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X Gran Berlinetta Concept)의 힐클라임 주행을 선보인 바 있다. 당시에 안드레 로테리가 직접 차량을 운전해 현장 관람객과 글로벌 자동차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사진설명> 제네시스, 이탈리아서 ‘마그마 GT 콘셉트’·‘엑스 스콜피오 콘셉트’ 주행 최초 공개